

월/요/광/장

박현수



최근 청년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시험에 불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탈농업화와 도시화 등과는 또 다른 것이다. 변화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 많은 변화 가운데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도 빼놓을 수 없다.

IMF 이후 잃어버린 것들

은 미래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에서 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침은 있었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기업에 대한 위험이 적었고, 따라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상황을 급변전시켰다. 기업은 줄줄이 도산했고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했다. 도산하지 않는 기업도 구조조정을 위해 인력감축에 나선 경우도 많았다.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 결과 기업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는 크게 낮아졌다. 회사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거나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나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암묵적 믿음이 깨어진 것이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대기업도 도산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기업의 구성원들은 예전처럼 조직의 성장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이런 세대의 변화가 취업시장에 반영되어 공무원 또는 대기업 선호 열기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공직사회나 공기업도 많이 달라졌지만, 사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의 도전의식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달성하려는 적극적 자세이기 때문이다.

<삼경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영남권의 60%에 불과한 호남 SOC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시설(SOC)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의 '건설교통분야 SOC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도로는 OECD 국가 평균의 67.2%에 머물렀고, 철도는 39.7%에 불과했다.

그동안 SOC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우리 산업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SOC 투자가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이다. 2004년 기준으로 호남권의 SOC는 89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영남권의 155조7천억원, 수도권 150조원에 비해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너무 가파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째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올려 고시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는 1년8개월 이상 지속돼 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 22일까지 5.65~7.25%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인상돼 최근 4주간 0.08%포인트나 올랐다.

은행권의 추가 이자수익은 엄청나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218조2천6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추가 이자수익은 엄청나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218조2천6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서민들의 '이자폭탄'이다. 금리 우대혜택 받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이자가 연간 183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국내경기에도 부담이다.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경계해야 한다. 가계별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의 급상승은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은행권의 추가 이자수익은 엄청나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218조2천6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 칼럼

전주혜



얼마 전, 올해 판사로 임관한 연수원 36기 판사 90명 중 여성이 57명으로 과반수인 63%를 차지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00년 이후 신규 임용되는 판사 중 여성의 비율이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는 율해가 처음이다 보니 자연스레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판사의 증가현상은 광주 지방법원에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신규 임용된 연수원 36기 중에서 담당판사가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차이는 없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판사 증가와 법원의 변화

판사 6명 중 5명이 여성이고, 전체 71명의 판사 중 여성판사가 12명으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되지만, 법원문화나 재판분위기가 달라지는 내부적인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사가 판사로 임관한 1992년에는 법원 판사 30여명 중 여성판사가 단 2명 뿐이었다.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발령 받았을 때 서울형사지방법원 설립 이래 2호 여성판사였다.

회식문화가 여성판사 위주로 바뀌고 있고, 각 합의부에 1명 이상의 여성판사가 배치되면서 재판부의 분위기 또한 더 부드러워진 면이 있다.

사실, 여성판사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 섞인 눈길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판사의 업무라는 것이 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질적인 향상도 있었다. 지난 1992년 창립된 이후 세계 80개 회원국 4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여성법관회의(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의 제10차 정기회의를 2010년 서울에서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여성 판사가 업무나 판사로서의 자세 등에 있어서 법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고

문인



금년 10월에 우리 광주에서 '제88회 전국체전'이 열린다.

전국체전은 국내외 3만 여명의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대화합을 이끌어 내는 스포츠제전이며, 개최도시는 전국체전을 통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시민모두가 주인이 되는 시민체전, 문화예술을 꽃피우며 다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체전, 관광산업과 첨단 기술로 온 누리를 밝히는 빛의 체전으로 개최하여 문화수도

문화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요즘 '문명의 심장부'라는 뉴욕도 공중질서를 다잡으려는 싸움이 한창이다. 뉴욕시는 올 1월부터 건물주들이 빌딩 낙서를 지우고 외부를 깨끗이 유지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기초질서 지키기 정도는 능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전국체전 성공열쇠는 '기초질서 지키기'

와 국제 스포츠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15만명 규모의 범시민 지원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체전은 열의만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다. 광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 광주마케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래도 손님 맞을 준비가 아닐까 싶다. 질서 있고 친절하며 청결한 광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고 일차체 준비를 해야 한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인터넷 사이트, 가입 절차처럼 탈퇴도 간편하게 해야

얼마 전 무료통화 상품권 한 장을 받았다.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그런데 회원탈퇴 요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탈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더 탈퇴 요청을 하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했지만 헛수고였다.

일만에 통화가 이뤄진 듯 했다. 이전 거의 회원탈퇴를 포기한 상태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편편한 기본은 영 가시지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하지만, 탈퇴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회원가입보다 탈퇴가 어려운 이유는 없다.

▲손혜정·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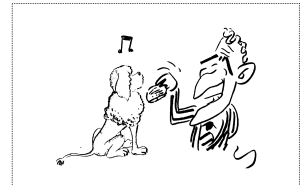
푸들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애완견이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깊고 불임성이 좋은데다, 머리도 영리해 훈련 적응도가 뛰어나다.

사르코지가 당선되자 뉴스위크는 "사르코지가 라파예트 이후 미국인들(Yanks)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썼다.

유럽과 미국에서 '푸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10년만에 퇴진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새 프랑스 대통령이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다.

이단아적 요소가 많다. 헝가리 이민자라는 출신 성분, 그의 노골적인 친미 성향은 더욱 그렇다.

또 다른 '푸들'



'제3의 길'을 내세우며 1997년 집권한 블레어는 '영국의 희망'이었다.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치욕적인 별명이 씌어졌다.

블레어의 퇴진에 맞춰 '또 다른 푸들'이 출제다. 그것도 미국과 세계 정계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던 프랑스에서다.

헤밍웨이와 실베스터 스티븐슨을 사슴없이 꼽을 정도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처럼 사르코지가 또 다른 푸들이 될지는 의문이다.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단아적 요소가 많다. 헝가리 이민자라는 출신 성분, 그의 노골적인 친미 성향은 더욱 그렇다.

'00명' 혼란스런 모집요강 발표 형태 고쳐져야

공기업이나 이룸있는 대기업의 입사는 바늘구멍 통과보다 더 어려워진게 요즘이다.

공채 기간이 지나면 기업들은 일제히 경쟁률을 발표한다. 엄청난 경쟁률이 회사의 인기도를 반영한다는 생각에서인지 갑사인 사도 빠뜨리지 않는다.

최근 공채에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언론에도 보도된 한 공기업의 경우 사무직을 '00명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회사의 최종 선발된 인원은 고작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느냐는 취업자들에게 지원서를 낼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선발인원이 아무리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40~50명 사이' '10명 이하' 등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00명'이라면 그야말로 10명에서 99명까지인데 이런 혼란스런 모집요강 발표 형태는 오래전부터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있다. ▲김낙형·광주시 남구 양곡동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